

# 장흥마씨 출토복식의 특징과 연대추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and Dating of Excavated Costume of The Ma Family in JangHeung

광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안명숙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 Myung sook An

### ◀ 목 차 ▶

- |                            |                   |
|----------------------------|-------------------|
| I. 서론                      | V. 출토복식의 바느질법     |
| II. 조선시대 염습의와 염습과정         | VI. 장흥마씨 복식의 연대추정 |
| III. 장흥마씨 출토유물의 출토배경과 출토경위 | VII. 결론           |
| IV. 출토복식의 종류와 특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excavated costume of Jangheung Ma's included jeogoris, skirts, and pants, and a jungchimak(중치막), jangot(장옷), cheolrik(철릭), and jikryeong(직령). Most of the items were made of silk and cotton. The clothes for shrouding were plainer than those found in other regions. The method of sewing was mostly broad - stitching, but backstitch, hem tacking and decorative saddle stitching were also used. Unlined clothes were made with on old method of sewing(옛쌈술), which was used mainly in the early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Dating of the excavated costume can be determined by examining the collar of the Korean coat or jacket, the shape and form of sleeve, the size of the sub, and the form of gusset. Straight, diagonal, and broad sleeves were the most commonly-used shapes of sleeve in the middle period of 17<sup>th</sup> century. In the latter period of Chosun, the trend moved towards a single - sub.

주제어(Key Words) : 염습의(shroud), 저고리(Jeogori), 중치막(Jungchimak), 장옷(Jangot), 철릭(Cheolrik), 직령(Jikryeong)

Corresponding Author : Myung sook An,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Gwangju University, 592-1 Jinwol-Dong, Nam-Gu, Gwangju City, 503-703, Korea Tel: +82-62-670-2348 E-mail: msan@gwangju.ac.kr

\* 이 연구는 2011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 I. 서론

2009년 7월 5일, 전남 곡성군 석곡면에서 출토된 분묘로, 묘주는 장흥마씨이고, 문중의 연락을 받고 광주 민속박물관 팀과 함께 도착했다. 도착했을 당시 관을 열지 않고 닫아 놓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가 광주민속박물관 팀이 도착하자 문중이 모인 가운데서 관 뚜껑을 열었다. 대렴금 위를 교포로 감아서 묶은 형태로 매장 당시 그대로의 모습인 것 같았다. 출토복식을 개관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염습상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장흥마씨(長興馬氏) 마세준(馬世駿:1491~1553)의 묘라고 하나 유물로는 남자가 아닌 여자복식으로 보여 마세준의 부인 묘가 아니었다 추정한다. 광주민속박물관에서 장흥마씨 유물출토보고서를 준비 중이므로, 출판되면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거 같다. 의복의 양식으로 봐서는 주로 17세기 초부터 말경 포류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주 전남지역에서 출토된 복식 중 온전한 수의 일습(안명숙, 2010)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므로, 이 시기 여인의 염습상태를 살펴보고, 염습으로 사용된 의복의 종류와 형태적 특징 및 바느질법 등을 통해 연대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다.

### II. 조선시대 염습의의 의복과 염습과정

염습의에는 시신에 직접 입혀지는 습의(襲衣)와 소렴, 대렴이 있다. 습의는 수의(壽衣)로, 새로 제작된 새옷(新衣)를 사용하거나 살았을 때 입었던 옷(遺衣)을 사용한다. 소렴과 대렴에는 본인의 평상시 옷이나 평소 가까웠던 주변 인물들

인 배우자 및 친지들의 의복이 포함되기도 한다.

장흥마씨 염습상태를 알 수 있게 출토되었으나, 이미 관 내부에 습기가 있어 복식유물들을 시신으로부터 분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다. 중간에 워낙 찢어짐이 심한 의복들은 제대로 수거할 수가 없어 그냥 덩어리로 걷어내어서 정확한 염습의 순서 등은 알 수 없었다. 관 내부의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 솜옷으로 된 포류와 따로 나온 소매 등의 보공품들도 다수 있었다.

정확하게 수거된 의복으로만 보면 습의로는 시신에 바지 3개와 치마 그리고 저고리 3개를 입혔다. 그리고 소렴금과 소렴교포로 싸여졌다. 그 다음 발쪽으로 저고리 1점과 포류 2개로 시신을 감쌌으며 위쪽으로는 솜저고리와 누비장옷, 대렴의 등으로 싸고 마지막으로 대렴금과 대렴교포로 묶었다. 다른 지역에서 출토된 복식에 비하면 간소화되어 입혀졌음을 알 수 있다.

### III. 장흥마씨 출토유물의 출토배경과 출토경위

전남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장흥마씨 마세준의 묘 이장 중 시신 2구가 발견되었다. 장흥마씨 문중에서 선산을 정리하여 이장하던 중 15세 세준의 묘를 부부가 따로 상하 묘로 되어 있던 것을 합장묘로 이장하기 위해 정리하던 중 발견되었다(長興府院君馬公天牧之墓 配定惠 主慶州李氏 上下封癸坐 : 부/ 諡文簡封長興君馬公勝之墓 貞敬夫人德水李氏 上下封癸坐 : 자). 발견 당시 마세준과 부인의 시신 2구가 함께 출토되었고, 1구는 완전히 육탈(肉脫) 되었으며, 1구에는 유물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 광주민속박물관 팀에게 연락이 와 조사가 시작되었다. 도착 당시 이미 분묘는 파헤쳐져 있었고,

〈표 1〉 저고리 주요 부위 치수

부위	종류	소색무명 홀저고리	연갈색명주 홀저고리	소색무명 누비저고리	소색무명 겹저고리	소색무명 저고리1	소색무명 저고리2	연갈색명주 저고리
저고리 길이		50	65	53	57	61.5	60	78
화장		70.5	102	57	74	64	66	100
고대		18	20	14	22	19	19	21
뒤폭		70	58	32	70	66	68	60
진동		26.5	25	17.5	29	29	28	29
수구		27.5	25	13.5	27	26	26	19
셔	겉 너비(상/하)	6.5/11	21/31	12/21	55/18.5	4.5/15	8/16	22.5/33.5
	길이(내/외)	34/20.5	47/30	? /27	35/25	38/26	39/25	59/42
	안 너비(상/하)	1.8/6.5	8/15	3.5/?	5/11.5	4/14	5/14	51/42
	셔 길이(내/외)	18.5/17.5	38/22	?	21.5/22.5	28/25	23.5/22.5	6/13
깃	너 겉깃	10	12	7.5	11	11.5	10.5	10
	비 안깃	85.5	8	7.2	11.2	11.5	10	8
	길 겉깃	34	49	29	33.3	37	38	50
	이 안깃	32.5	44	28	33.2	34	36	36

〈표 2〉 저고리 부위별 형태

	소색무명홀저고리	연갈색명주홀저고리	소색무명솜누비저고리	소색무명겹저고리	소색무명솜저고리1	소색무명솜저고리2	연갈색명주솜저고리
길형태	사선형길	사선형길	직선형길	직선형길	직선형길	직선형길	직선형길
깃형태	깃	목판깃	칼깃	칼깃	목판깃	목판깃	목판깃
	안깃	목판깃(들어달림)	목판깃(내어달림)	목판깃(내어달림)	목판깃(들어달림)	목판깃(들어달림)	목판깃(내어달림)
배래모양	직배래	직배래	수구쪽으로 좁아지는 사선배래	직배래	직배래	직배래	수구쪽으로 좁아지는 사선배래
무유무	×	×	○	○	○	○	○
등바대	○	○	×	○	×	×	×
옆트임	×	○	×	×	×	×	×



소색무명홀저고리



연갈색명주홀저고리



소색무명솜누비저고리



소색무명겹저고리



소색무명솜저고리1



소색무명솜저고리2



연갈색명주솜저고리

〈그림 1〉 저고리

어느 분묘가 마세준이고 부인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다만 문중 어른들의 주장이 유물이 있는 것이 마세준의 분묘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을 믿고 조사가 시작되었고, 분묘에서 나온 단정적인 근거는 아무 것도 없고 오로지 복식뿐이며 문중이 소지하고 있는 기록<sup>1)</sup>만 있을 뿐이다. 광주민속박물관 팀에서도 그 말을 믿고 마세준의 묘라 생각하고 유물을 수습하였다. 그러나 유물 수습 과정에서 시신이 치마를 입고 있었고, 염습의로 저고리, 개당고형바지(남자분묘에서도 출토), 장옷 등 여자의 복식일 가능성이 커 마세준의 부인 묘였을 것이라 추정된다.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으나 마세준의 부인 묘였다면 비슷한 시기였으나 약간 후대일 것으로 추정되어 17세기 복식일 가능성이 크다.

1) 장흥마씨 문중 소지 족보

#### IV. 출토복식의 종류와 특징

출토복식으로는 저고리 7, 바지 3, 치마 1, 장옷 2, 창의 2, 철릭 1, 직령 1, 버선 1, 습신 1. 좌수낭 1, 대렴금과 대렴금교포, 소렴금과 소렴금교포 등으로 총 24점이 있다. 염습상태를 확인했을때 저고리와 바지, 치마, 장옷은 입고 있었던 것을 벗겼으므로 습의로 입었던 옷이고, 철릭과 직령, 중치막 등은 출토 당시 벗길 때는 없었고 보공품 등을 정리하면서 발견된 의복이었던 것 같다.

##### 1. 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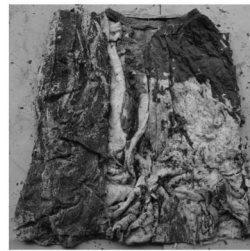
출토 저고리는 적삼(적삼은 홀저고리(권준희, 권영숙, 2009)라 통칭함. 이후 적삼이 아니라 홀저고리라 부름)을 포함해 총 7점으로 구성은 홀 2점, 겹 1점, 솜을 둔 저고리가 4점으로, 솜을 둔 옷이 가장 많았으며 이 중 누빈 저고리가 1점 포함되어 있다. 사용된 직물은 무명과 명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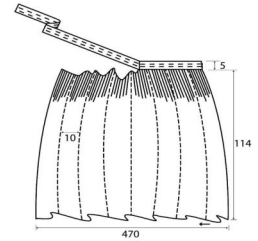
소색무명홀바지1      소색무명홀바지2      소색무명숨누비바지

〈그림 2〉 바지

연갈색명주홀저고리는 연갈색명주겹누비중치막 안에 끼여 입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저고리로, 옆트임이 12cm 크기로 있다. 소재인 명주는 얇고 조직도 조밀하며, 소매 부분이 거의 많이 뜯어져 있고, 소매길이가 출토 저고리 중 102cm로 가장 길다. 소색무명숨누비저고리는 어린아이 저고리처럼 다른 저고리에 비해 상당히 작고, 오른쪽길(안길) 부분이 많이 파손되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었다.



갈색명주숨누비치마



도식화

〈그림 3〉 갈색명주숨누비치마

## 2. 바지

조선시대 바지는 조선 전기의 경우 묘주의 성별과 관계없이 속곳형의 바지가 거의 대부분이다. 특히 남자의 바지는 임진왜란 전에는 여자 속곳과 같은 바지를 입었고, 임진란 이후는 사복바지 형태의 바지를 착용했다(구남옥, 2002)고 보인다. 여자의 바지는 임란 이후도 속곳형이었다. 속곳형의 바지는 당(襠)이나 밀이 부착된 바지로 사복 구분이 없으며 대부분 바지통과 부리가 넓고 트임이 있으며 허리에 주름이 잡혀 있는 바지를 의미하며, 구성양식에 따라 개당고형, 합당고형, 세가닥바지로 나눌 수 있다(구남옥, 2002).

본 유물에서는 개당고형바지 1점, 합당고형 바지 2점이 출토되었고, 3점 모두 시신에게 입혀져 있었다.

소색무명홀바지1과 소색무명홀바지2는 합당고형 바지고, 소색무명숨누비바지는 개당고형 바지로, 합당고형 바지 중앙에 있는 끈이 개당고형 바지에는 없었다. 바지의 착장순서는 보통 밑트임이 없는 바지를 먼저 입고 그 위에 트임이 있는 바지를 입는 것으로 출토되었다(이은주, 1999). 본 출토유물에서도 개당고형인 밀이 트인 바지가 가장 밖에 입혀졌다.

〈표 3〉 출토바지의 주요 부위 치수

	소색무명홀바지1	소색무명홀바지2	소색무명숨누비바지
바지길이	76	86	84.5
바지폭	148	144	118
허리너비	17	12	11
허리길이	90	90	87

## 3. 치마

갈색명주숨누비치마로 명주로 만들어졌고, 10cm 정도의

누빔이 전체적으로 있다. 총길이는 114cm이고 치마폭은 470cm이다. 주름이 잡혀있고, 35cm 부분되는 곳까지는 허리말과 치마가 붙어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떨어져서 주름도 풀어져 자국만 남아 있다. 치마의 주름 방향은 안자락쪽을 향해 잡혀 있다.

## 4. 중치막

중치막 유물은 임란 후 17세기의 유물부터 확인된다. 조선 전기에 입혀졌다고는 해도 아직까지 전기의 유물은 현존하는 것이 없다(경기도박물관, 2003). 일반적으로 창의를 트임 유무, 소매너비, 무의 유무, 장식선의 유무에 따라 대창의, 소창의, 중치막, 학창의로 구분하였으나(안명숙, 2007), 조선중 후기 출토유물의 경우에는 무나 소매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기에는 제한이 있어 최근에는 옆선이 트인 경우는 중치막, 뒷자락에 트임이 있고 소매가 넓은 경우는 창 의(송미경, 2007)로 분류한다.

중치막은 소매너비와 배래선으로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데, 17세기 중치막 소매형태는 30cm에서 50cm로 변화하는 광수다. 진동과 소매통의 차이는 17세기는 초에는 5cm 내외로 적었다가 1680년대는 10cm 차이가 나고, 1690년대 이후는 20cm 정도 차이가 난다. 17세기 말에는 진동선에 넓은 폭의 직사각형 소매를 달고 양 끝인 거드랑이 쪽과 수구 쪽의 모서리 부분만 곡선처리하여 급한 사선형을 이루거나 둥근 두리소매가 된다(경기도박물관, 2003).



연갈색명주숨누비중치막



갈색명주숨누비중치막



갈색명주숨누비중치막 오목누비

〈그림 4〉 중치막

1) 연갈색명주숨누비중치막

명주로 만든 중치막으로 숨을 얇게 두어 숨이 있는 지 없는 지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상당히 가벼운 옷이다. 겹깃은 갈깃, 안깃은 목판깃이며 소매는 두리소매이며 왼쪽소매는 분리형이다. 전체 폭이 넓고 겹선은 이중선으로 되어 있다. 옷 전체가 2.2~2.5cm 간격으로 누벼졌다.

중치막의 시대를 구분짓는 진동과 소매너비를 보면 진동은 28.5cm이고 소매너비는 33.5cm로 그 차이가 5cm 정도이고, 소매배래 모양도 거의 일직선으로 17세기 양식을 나타낸다.

2) 갈색명주숨누비중치막

연갈색명주숨누비중치막보다 고운 누비로 누비간격은 0.9cm이며, 이 중치막 역시 숨을 얇게 두어 숨을 두었는 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소매는 연갈색명주숨누비중치막보다 더 길고 큰 두리소매이고, 철릭처럼 왼쪽소매를 분리할 수 있는 형태이다. 진동은 30cm이고 소매너비가 43cm로 13cm 차이가 나고, 배래모양도 진동에서 급하게 사선을 이루다가 두리소매 형태를 이루는 17세기 후기의 양상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띤다.

5. 장옷

장옷은 조선시대 초 중기에 남녀 모두 입었던 포의 일종이다. 목판깃에 직배래이며 양옆에 무가 달렸으며 트임이 없는 포류이다. 특히 17세기 여자 분묘에서 많이 출토되었다. 출토 장옷 2점 모두 염습의로 사용된 포로, 110cm 내외의 길



소색무명홀장옷



갈색무명숨장옷

〈그림 5〉 장옷

이로 다른 포류에 비해 짧았다.

소색무명홀장옷은 소색무명홀저고리와 소색무명숨저고리1 사이에 입혀져 있었다. 겹, 안깃 모두 목판깃이며 소매는 직배래이며, 태수(끝동)를 대었다. 포의 폭이 상당히 넓으며 사다리꼴무를 대었다.

갈색무명숨장옷은 누비지는 않았으며 숨은 두겹게 두었다. 깃은 목판깃이며 소매 부리는 제천으로 부리를 대고 그 위에 연한 갈색으로 다시 대었다.

6. 철릭

조선시대 철릭을 특징짓는 의와 상의 비율을 보면 조선 초기에는 의가 상보다 길어 의:상의 비율이 1.2:1 정도이다.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상이 더 길어져 16세기 중후반에는 의와 상이 비슷한 비율을 이루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1:1.4까지의 비율을 보인다. 17세기 말에는 1:1.7~1:2 정도의 비율을 보이며 이후 점차 길어져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1: 2.3,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상이 훨씬 길어져 1:3.6에 이르는 비율을 보인다(홍나영, 2008). 철릭의 소매는 좁은 소매에서 후기로 가면서 점차 넓어져 두리소매가 된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착수, 통수, 붕어배래형 소매 등이 나타났고, 임진왜란 기간에는 소매통이 다시 좁아졌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소매통이 다시 넓어져 이전 시기보다 더 곡선화된 붕어배래형 소매가 보인다.

갈색면주(綿紬)겹철릭은 겹감은 면주(綿紬), 안감 상의는 길부분은 명주, 실타부분은 문주(文紬)로 되었고, 하의도 문주로 만들어진 옷이나 정확한 문양은 잘 모르겠다. 깃은 갈깃이며 9cm 너비의 큰 동정이 달려있다. 양쪽 소매 모두 분리될 수 있게 되었고, 매듭단추를 6개씩 달았다. 치마 폭수는 겹감은 총 12폭이며, 안감은 문주로 포폭이 달라 7폭으로 구성되었다. 하상의 주름은 2.2cm 간격으로 잡혀있다.

철릭은 시대가 내려오면서 총길이는 길어지고, 이에 따른 하의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장인우, 1995). 본 유물의 총길이는 142cm이고, 상의와 하상 비율은 약 1: 1.9로 하의의 길이가 매우 길다.



갈색면주겹철릭

연갈색명주겹직령

〈그림 6〉 철릭과 직령

7. 직령

직령에서 시대변화가 나타나는 요소는 깃, 소매, 무 등이다. 깃은 초기의 이중깃에서 점차 칼깃으로, 섰은 이중섰에서 단일섰으로, 소매는 배래가 수구쪽으로 사선이 되는 통수에서 후기로 갈수록 두리소매 형태로 바뀐다. 16세기 말에는 진동에서 배래로 떨어지는 선의 모양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두리소매형으로 변화하는 중간과정을 보이고 이후 진동에서 급격한 사선형으로 떨어지는 광수의 두리소매가 된다(홍나영, 2008).

연갈색명주겹직령은 칼깃에 단일섰이고, 무는 사다리꼴 무로 뒤젓합형이고, 깃너비와 비슷한 약 10cm 크기의 동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받침옷이었음도 알 수 있다.

V. 출토복식의 바느질법

1. 저고리

1) 홑저고리

홑저고리 바느질은 〈표 5〉를 보면 부위별 바느질을 알 수 있으며, 홑저고리에 사용된 바느질은 솔기와 솔기를 박는 것

은 대부분 고운 흠질로 하였고, 고운흠질 후 감침질 하는 옛쌈솔<sup>2)</sup>로 솔기처리 하였다. 식사와 식서를 사용하는 곳인 등솔과 소매 진동은 고운 흠질 후 모두 가름솔 처리하였다. 옆선 솔기처리도 무명저고리는 앞쪽으로 시접처리를 하였고, 명주저고리는 뒤쪽으로 하였다. 대체적으로 홑옷이라 바느질 등은 꼼꼼하고 고와서 옆선과 밑단 등의 옛쌈솔 바느질한 솔기가 안으로 말릴 정도였다.

2) 겹저고리

출토유물 중 겹저고리는 소색무명겹저고리뿐으로, 겹옷이나 바대가 깃부분과 뒷 중심선을 중심으로 하여 양쪽에 한 부분씩 대어져 있다. 겹저고리임에도 바느질이 상당히 꼼꼼하고, 다른 저고리 바느질은 대부분 흠질인데 겹저고리만 고운 온박음질을 사용하였다. 바느질은 뒷중심선 솔기는 식서를 사용하여 가름솔로 처리하였고, 진동도 가름솔 처리하였다.

3) 솜저고리

솜저고리는 대부분의 복식이 그러하듯이 겹저고리 바느질과 비슷하나 솜을 두고 바느질하는 것이므로 겹저고리보다 바느질이 거칠고, 솜을 고정시키기 위해 장식용 상침바느질이 많이 사용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깃부분과 저고리 가장둘레 부분을 상침하였다.

2. 바지

1) 홑바지

소색무명홑바지<sup>1)</sup>의 바느질은 홑옷이며 전체적인 바느질은 고운 곱솔로 되어 있다. 옷감이 얇고 배가 고와서 옛쌈솔 바느질을 한 부위가 당겨서 바지 부리 등이 휘말렸다. 옆선

〈표 4〉 포류의 주요 부위 치수

종류	부위	길이	화장	뒤폭	진동	고대	깃		겉섰		안섰		옆트임
							너비(겉/안)	길이(겉/안)	너비(상/하)	길이(내/외)	너비(상/하)	길이(내/외)	
연갈색명주솜 누비 중치막		130	111	55	28.5	18	11/6.5	51/44	21/44	106/95	4/26	90/86	75
갈색명주솜 누비 중치막		135	118	59	30	19	11/7.5	51/41	23/45	117/99	6.5/26	108/97	93
소색무명 홑장옷		109	80	72	29	16.5	10/10	36/38	3.5/22 13/30	89/76 76/80	5.5/25	71/72	-
갈색무명솜 장옷		111	76	71	32.5	19.5	10.5/10.5	37.5/37	?/32.5 ?/19.5	85.5/51.5 51.5/75	7/32	74.5/72.5	-
갈색면주 겹철릭	142 (49:93)	128	60	30	19		11.5/8.5	51/40	25.5	14	-	-	-
연갈색명주 겹직령		136.5	120	54.5	30	19	12.5/12.5	48/36	48.5	103	29.5	98	-

2) 옛쌈솔이란 출토복식에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법으로, 가는 홑옷의 배래나 옷감의 곧은선[直線]과 어긋선[斜線]을 연결할 때 사용하던 바느질로 매우 정교하여 많은 정성이 드는 바느질법

〈표 5〉 저고리 부위별 바느질과 솔기처리

종류	부위	등솔	섶(겉/안)	옆	진동	배래	무	안단처리/ 장식박음	비고
소색무명홀저고리		고운흡질/가름솔(식서)	고운흡질/겉, 안섶: 가름솔	옛쌈솔/앞쪽	가름솔	옛쌈솔/앞쪽	×	× 가장자리 모두 옛쌈솔	흡질
연갈색명주홀저고리		고운흡질/가름솔(식서)	고운흡질/겉, 안섶:길쪽	옛쌈솔/뒤쪽	고운흡질/가름솔	쌈솔/뒤쪽	×	고운감침/옆선후 밑단처리	흡질
소색무명숨누비저고리		흡질/오른쪽	겉, 안섶:길쪽	앞쪽(길쪽)	길쪽	뒤쪽	뒤쪽		흡질
소색무명겹저고리		고운온박음질/가름솔	겉, 안섶:가름솔	가름솔	가름솔	앞쪽	앞쪽	밑단, 옆단 05cm 간격, 0.2cm 고운 장식박음질	온박음질
소색무명숨저고리1		오른쪽	겉, 안섶:길쪽	앞쪽(길쪽)	길쪽	뒤쪽	뒤쪽	장식상침(두담상침)	흡질
소색무명숨저고리2		오른쪽	겉, 안섶:길쪽	앞쪽(길쪽)	길쪽	앞쪽	뒤쪽		바느질 거침
연갈색명주숨저고리		오른쪽	겉, 안섶:길쪽	길쪽	길쪽	뒤쪽	뒤쪽	소매끝, 밑단, 옆선: 장식흡질	흡질

은 식서로 흡질로 바느질 되었고 폭과 폭의 연결은 흡질이 다. 바지 폭과 폭의 이음은 가름솔처리하고 흡질로 바느질하였다. 바대는 마름모꼴을 가운데에서 4개로 모두 이었으며 가운데 십자가 부분은 모두 고운 흡질을 하였고 바지에 탈 때 가장자리는 감침질 하였다.

소색무명홀바지2 바느질은 허리 안 바느질은 공그르기로 되어 있다. 바지 옆선 트임부분은 바대를 대어 고운 감침질로 처리하였다. 옆선은 식서로 흡질하였고 시접은

앞쪽으로 솔기 처리하였다. 밑단은 고운 곱솔로 0.2~0.3cm 정도로 곱게 바느질하였다.

2) 숨바지

숨을 둔 누비바지이나 바느질은 상당히 곱다. 바지의 밑단은 판단을 대고 고운 흡질로 상침하였다. 바느질은 허리는 감침, 밑단은 1cm를 따로 대어 감침질하였다.

3. 중치막

연갈색명주숨누비중치막의 솔기처리는 섶과 길 연결, 길과 무 연결 모두 길쪽으로, 무와 무는 뒤쪽으로, 배래솔도 뒤쪽으로 하였다. 숨을 넣어 누빈 옷이나 아주 얇아 대부분의 바느질

은 고운 흡질로 하였다. 깃은 고운 감침으로 하였다. 안단이 현대의 치마 안단과 같이 모서리가 사선으로 처리되었고 1.5cm 너비의 안단을 밑단과 무 있는 옆선 부분에 대었다.

갈색명주숨누비중치막은 연갈색명주숨누비중치막과 바느질법은 거의 같다. 안단처리도 같으며 안단너비는 0.8cm 정도 크기이다.

4. 장옷

소색무명홀장옷의 구성은 뒷중심은 식서로 가름솔로 솔기가 되었고, 겉·안섶은 길쪽으로, 진동은 가름솔, 무는 길쪽으로 시접방향이 되었다. 소매 배래는 뒤쪽으로 솔기 방향이 되었다. 깃에 바대를 대었고, 바대 전체 길이는 57cm, 바대 폭은 10cm 이다. 바대바느질은 길이는 감침질하였고 폭 부분은 박음질하였다. 소매 부리는 걸감을 0.3cm 정도 접어 넣고 흡질로 박았다. 전체적인 바느질은 식서는 온박음질 후 가름솔 처리하고, 푸서는 곱게 옛쌈솔로 처리하였다. 겹섶과 안섶 끝은 식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무명이므로 옛쌈솔의 너비는 0.3~0.5cm 정도의 크기로 탱탱하게 하였다.

갈색무명숨장옷의 전체적인 바느질은 솜옷이므로 성근 흡질로 하였고, 부리부분 바느질은 안감 소매가 겉으로 넘

〈표 6〉 장옷의 부위별 바느질과 솔기처리

종류	부위	등솔	섶(겉/안)	옆	진동	배래	무와 무	무와 길	비고
소색무명홀장옷		온박음질/가름솔	겉, 안섶:길쪽	옛쌈솔:길쪽	온박음/가름솔	옛쌈솔/뒤쪽	온박음/가름솔	옛쌈솔/길쪽	식서는 온박음 후 가름솔/푸서는 옛쌈솔
갈색무명숨장옷		오른쪽	겉, 안섶:길쪽	길쪽	길쪽	앞쪽	뒤쪽	길쪽	옷전체 상침(7cm마다 시침)

어와 겉쪽에서 부리부분을 형성하고 1cm 간격으로 시침하였다. 옆선과 밑단은 7cm 정도 간격으로 세삼 상침을 하였다.

## 5. 철릭

출토된 철릭은 겹철릭으로 의복의 상태도 새옷처럼 좋으며, 바느질도 상당히 곱고 대부분 고운 홉질로 하였다. 시접처리는 겹섶과 길이 연결된 부위는 섶쪽으로 시접을 보냈고, 진동은 길쪽으로 하였다. 동정은 2cm 간격 홉질로 바느질하였다. 겹옷이므로 시접은 안보이고 시접의 여유분도 0.5cm 정도로 넓게 두었다. 허리부분과 배래부분 시접은 1cm 정도로 넓었다. 치마폭 이은 솔기는 겉자락쪽을 향하였다.

## 6. 직령

직령은 베는 곱고, 많이 손상되어 곳곳에 보존처리시 형태고정을 위해 간단한 보수처리를 하였다. 겹고름과 안고름이 달려있으며, 2.5cm 내외의 너비로 좁게 달려있다. 바느질은 전체적으로 0.2cm 정도의 고운 홉질이고, 시접처리는 길과 섶이 연결된 곳은 길쪽으로, 길과 무가 연결된 곳도 길쪽으로, 무와 무는 앞쪽(길쪽)으로 시접처리를 하였다. 뒷솔기는 식서로 가름솔하였고, 입어서 오른쪽으로 시접처리하였고, 뒷길 양옆의 무는 길쪽으로 시접처리 하였다. 시접의 분량은 대개 0.5cm 이내로 하였다. 겹바느질과 별로 다른 것이 없었다. 동정은 2cm 정도 간격으로 듽성듬성 시침하였다.

## Ⅵ. 장흥마씨 복식의 연대추정

저고리와 장옷은 깃모양이나 옷의 길이, 장옷의 소매 끝동 형태, 소매와 무 형태 등으로 시대를 구분하나 본 출토유물에는 과도기적 양상이 나타나 17세기 초, 중, 후기를 명확하게 구분짓기가 쉽지 않다. 저고리는 옷깃과 소매 형태로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데, 주로 조선 초기부터 중기양식인 목관깃과 갈깃이 주를 이루고 직선형 배래인 점을 보면 17세기 이전의 양식임을 알 수 있겠다. 반면에 중치막, 철릭, 직령 등에는 시대를 구분지을 수 있는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본 출토유물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규정하여 보겠다. 중치막은 입란 후부터 등장하는 옷으로, 소매와 무의 형태로 구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시대를 구분짓는 진동과 소매너비를 보면 17세기 초는 그 차이가 5cm 정도이고, 그 이후는 10cm, 20cm 로 차이가 크다. 연갈색명주솜누비중치막은 소매너비와 진동의 차이가 5cm이고, 갈색명주솜누비중치막은 13cm 이다. 또한 17세기 초에는 소매배래도 일직선이나, 그 이후 소매는 광수형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본 출토 중치

막은 소매너비와 진동의 차이, 소매형태 등을 볼 때 17세기 초에서 후기로 가는 과도기적 양상을 띠다 하겠다.

본 출토 유물의 철릭은 깃의 모양(갈깃, 단일깃), 의와 상의 비율(1:1.9), 소매의 모양(두리소매), 주름너비(2.2cm) 등을 볼 때 17세기 양식을 나타내며, 최원립(1618~1690) 모에서 출토된 철릭(안명숙, 조효순, 2001)과 흡사한 양식을 보인다. 최원립장군 철릭은 갈깃에 광수형 두리소매이며, 의와 상의 비율도 1:1.9이며 주름너비는 1.5cm로 조선시대 17세기 중기 이후 남자 철릭의 특징을 나타낸다.

본 출토유물의 직령은 무 양식 중 옆트임이 있는 뒤젓힘형 직령으로 늦은 시기에 해당된다. 앞뒤길이 같고, 광수, 단일깃, 단일섶, 고름 등이 주로 사용되어 17세기 직령의 양상을 띠다.

## Ⅶ. 결론

본 출토복식은 정확한 연대를 알기는 어려우나 여인의 분모로 17세기 해당되는 복식이라 추정된다.

의복은 저고리가 7점으로 가장 많았고, 속고름 바지 3점과 치마, 그리고 17세기 여자 출토복식에 거의 빠지지 않고 출토되는 장옷 2점과 중치막, 철릭, 직령이 출토되었다.

바느질은 대부분 홉질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온바음질도 사용되었고, 그 외에 감침질과 시침, 장식상침 등이 사용되었다. 솜옷이 많았는데, 솜옷의 바느질도 고운 바느질이 주로 사용되었다. 대부분 등솔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솔기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홉옷인 경우 포폭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식서를 활용해 가름솔로 처리한 의복이 많았다. 섶은 대부분 길쪽으로 솔기처리를 하였는데 2개의 저고리에서 겹섶, 안섶을 모두 식서를 사용하여 가름솔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또한 홉옷은 옛쌈솔로 조선 초기에 많이 사용된 바느질 기법이 사용되었다.

출토시기는 저고리나 포류의 옷깃과 소매형태와 소매모양, 섶의 크기, 무 형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조선 전기에 사용되었던 옷깃은 목관깃이 가장 초기 양식이고 그 다음 갈깃이 등장한다. 소매모양은 직배래 통수형에서 사선소매, 17세기 중기 넘어서는 두리소매형 광수형이 주류를 이룬다. 상의의 섶도 조선 전기는 폭이 넓어 이중섶이 등장하고 후기로 갈수록 단일섶이 된다. 답호가 조선 전기에만 주로 등장했던 의복이었던 것처럼, 중치막은 의복 자체가 조선 초기에는 사용하지 않았고 입란 이후 등장했던 의복이었다. 시대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포 중 철릭을 들 수 있는데, 철릭은 소매모양, 주름너비, 깃의 모양에서도 알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위로 상의와 하상의 비율에서 잘 나타난다. 출토 철



릭은 1: 1.9의 비율로 조선 초기에 상의가 길었던 것인데 비해 17세기는 하상이 더 길어져 거의 1:2에 가까울 정도의 양상을 나타낸다. 위와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 곡성군 출토 복식은 17세기 양상을 잘 나타내 주는 복식이라 하겠다.

■ 참고문헌

구남옥(2002). 조선시대 남자바지에 관한 연구. **복식**, 52(7), 한국복식학회, 50-54.  
 권준희, 권영숙(2009). 조선시대 남성분묘 출토 적삼 고찰. **복식**, 59(3), 한국복식학회, 133.  
 경기도박물관(2003). **동래정씨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경기도: 경기도박물관.  
 송미경(2007). 김학(1572~1633) 묘 유물을 통해 본 17세기 남자 포에 관한 연구. **복식**, 57(7), 한국복식학회, 103.

안명숙(2007). **우리 옷 이야기**. 서울: 예학사.  
 안명숙(2010). 전남 곡성군 장흥마씨 출토여복에 관한 연구. **남도민속연구**, 20, 남도민속학회, 109-135.  
 안명숙, 조효순(2001). 전남영암출토 최원립장군 출토복식에 대한 고찰. **한복문화**, 4(4), 한복문화학회, 16.  
 이은주(1999). 16세기 중엽 여성 염습의의 일례. **복식**, 48, 한국복식학회, 164.  
 장인우(1995). 조선중기 출토복식 중 일반복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나영(2008). 출토복식을 통해 본 조선시대 남자 편복포의 시대구분. **복식**, 58(5), 한국복식학회, 120-132.

접 수 일 : 2011년 5월 20일  
 심사시작일 : 2011년 6월 7일  
 게재확정일 : 2011년 7월 25일